

CommerceNet 컨소시엄과 CommerceNet Korea

‘정보의 바다, 기회의 바다’라 칭할 수 있는 ‘인터넷’이 사회 전반에 보급 확대됨에 따라 ‘정보화 사회’라는 표현만큼 우리에게 친숙해진 용어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전화나 우편 등 1차적인 통신 매체를 통한 정보 교류의 문화가 PC의 등장과 함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전자통신 문화로 연계되면서, 산업부문의 업무효율성 증가, 생산 비용 감소 등의 효과 창출을 통해 기업 Reengineering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의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286만에 이르는 국내 정보통신 이용자와 35만에 이르는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 현상과 함께 금세기 말까지 전세계 1억대의 컴퓨터와 1백만개의 Network이 연결될,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통신산업의 미래를 예견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 재 천 데이콤 정보통신사업단 단장

단순히, 통신의 의미로 시작된 정보통신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의 중요성 부각과 함께 인터넷상의 전자거래(Electronic Commerce)에 대한 정부 및 학계, 기업 등 각 계의 참여가 급증함은 국가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무적인 현상이며, 정보통신을 통한 국제화 실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각 계의 노력이 공공기관의 주도와 민간기관의 자발적 참여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노력이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제표준 제정 작업에의 참여로 연계될 때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전망은 밝다 하겠다.

21세기 전략사업으로, 국가간 정보통신 산업 기반

구조의 구축을 통해 국제적인 전자거래(Electronic Commerce)를 실현키 위한 노력은 이미, 정부의 지원하에 정보통신 부문의 선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정보화 기반 구축사업(GII :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이 진행중에 있으며, 아시아지역에도, APEC 국가들을 중심으로한 ‘APII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ject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어, 21세기 정보화 사회 선도를 위해, 국가 경쟁력 향상은 물론 차세대 중점산업으로의 정보통신산업 육성은 관련 국가간의 공조와 국제표준을 수용한 국가간 공동 개발 노력이 선결 과제임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효과적인 육성과 국

가간 전자거래(Electronic Commerce)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반 환경 구축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의 공동 참여’와 ‘관련 국제 표준화 기구와의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미 정부의 재정 지원하에, 인터넷 전자상거래 표준 정립과 전세계 정보통신 인프라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표준화 조직인 ‘CommerceNet 컨소시엄’과 연계된 ‘CommerceNet Korea’의 설립 추진에 대한 검토는 국내 인터넷 기반의 정보통신산업 발전방향 정립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CommerceNet 개요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립된 CommerceNet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북 캘리포니아 지구’의 지역정보 인프라를 설립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94년 4월 발족하였고, 미국 정부의 기술재투자 프로젝트(TRP)의 보조금과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 상거래를 수행하는 회사들의 ‘연합 컨소시엄’을 말한다.

CommerceNet은 21세기 미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성격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 인터넷을 사용한 상거래 및 대금결제를 지원하

기 위한 국제 표준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 176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어, CommerceNet의 표준이 사실상의 표준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목 표

CommerceNet의 설립 취지는 보안기술(Secure HTTP, JEPI 등) 등의 표준화와 Pilot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참여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창출, Electronic Commerce를 가속화 시키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10개의 Working Group을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인터넷상의 교역당사자간 새로운 거래방식을 시험하고, Pilot 프로젝트를 위한 선도적인 기업포럼 제공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개방적 표준의 정의와 지침 설정,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를 시작하려는 새로운 벤처 기업을 위한 Incub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중에 있다.

구 성

CommerceNet 멤버의 참가자격은 핵심 멤버 기업으로 구성된 ‘Steering Committee’가 결정하며, 미국이외의 기업은 ‘Associate Member’로서 참가가 인정되나, Steering Committee에 참가권을 갖는 Sponsoring Member는 될 수 없다.

〈표 1〉 CommerceNet 회원구성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Sponsoring Member	○ CommerceNet의 방향과 기술표준에 대한 결정권 ○ Working Group의 참가권과 의결권 ○ 연회비 : 35,00 US \$	미국내 기업 대상
Associate Member	○ Working Group의 참가권(의결권 없음) ○ 연회비 : 1,500~10,000 US \$	국내 참가기업(2개사) · DACOM · Seoul Web Society

Working Group 구성
 CommerceNet Working Group은 Pilot 프로젝트의 제안과 선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10개의 Work-

ing Group으로 구성되며, 신사업 조사, 시범프로젝트 수립 및 CommerceNet 기술개발 조직에 요구사항 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표 2〉 CommerceNet Working Group

Working Group 명	주요 내용
Connectivity	○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 ○ Security에 대한 조사
Network Services	○ 인터넷상의 Security 강화를 위한 프로토콜과 Application 서비스 표준화 추진 ○ 인터넷을 통한 안전한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기술 조사
Payment Services	○ 인터넷상의 대금결제시스템 개발 제동 ○ 인증기관들의 교차 인증을 위한 절차 개발 ○ 비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다수 은행 Pilot Project 개발
Marketing	○ 기업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Tool과 마케팅의 연계방법 ○ 마케팅 비용절감, 수요와 인식의 증대, 유통채널의 증대
Directory Services	○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 개발
Electronic Catalogs & Directory	○ 온라인 접속과 주문, 서비스 검색, 정보목록 등을 제공 ○ 인터넷상의 산재한 정보에 대한 손쉬운 검색기능 개발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 인터넷 또는 기업내 N/W를 이용한 EDI 아키텍처 정의 ○ 인터넷상의 EDI 메시징과 부가가치 Network 제공
Public Policy	○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법규 통지 ○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제공
CALS	○ 가상기업의 조직화 및 통합제품 개발을 위한 시나리오 개발
Collaborative Engineering	○ 인터넷을 이용한 다른 조직간의 공동 설계, 개발 데이터의 공유

CommerceNet의 전망

CommerceNet은 인터넷상에서 개방적인 표준 전자상거래 인프라 창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지원키 위한 사업을 기본으로, 교육, 보건 및 디지털 도서관 등의 분야로의 사업진

출을 피하고 있어, 5년내 미국내 대다수의 업체와 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수행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향후 3천여개 업체의 기업간 거래와 주연방 정부의 30여개 프로젝트에 CommerceNet가 관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Global 사업의 일환으로 CommerceNet Global Partner 프

로그랩은 CommerceNet의 향후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CommerceNet Korea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

현재 설립 추진중인 CommerceNet Korea는 인터넷을 통한 표준 전자상거래 인프라 창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인프라 성장 촉진과 국내 전자상거래 확산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비영리 조직이다.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 CommerceNet의 Global Partner의 하나로, 현재 176개 회원사를 보유한 CommerceNet 컨소시엄 및 CommerceNet Japan 등 CommerceNet Global Partner들과의 사업협력과 전자상거래관련 기술의 회원사 공유를 통해 국내 기술력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인터넷을 통한 국제 교류 및 협력관계 활성화에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CommerceNet Global Partner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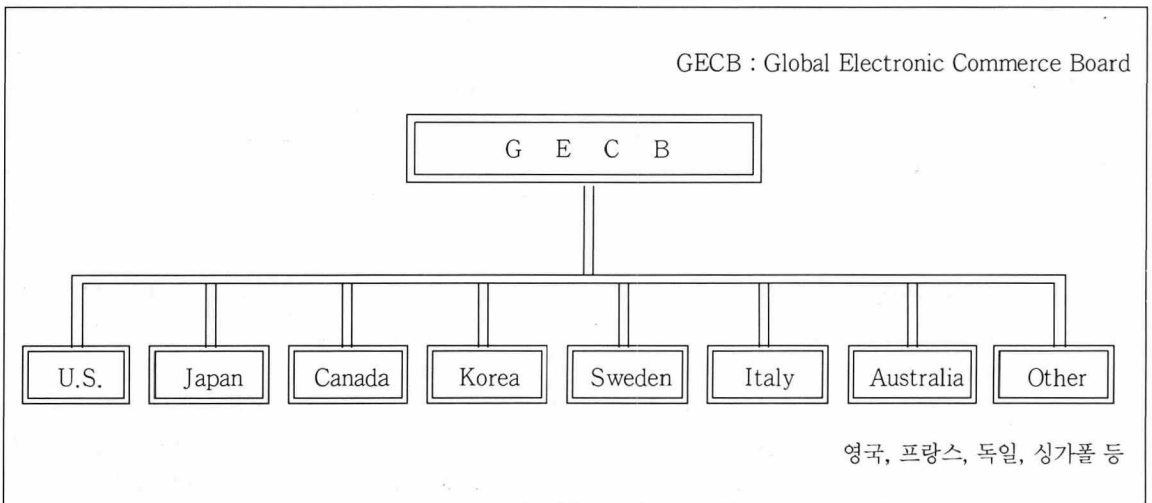
CommerceNet Global Partner는 전세계적인

인터넷 이용 증가와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가 세계적으로 통용됨에 따라, 글로벌 솔루션의 개발, 호환성 있는 표준의 촉진 및 세계적인 정책 문제와 관계된 솔루션의 논의와 제안을 위해 CommerceNet에 의해 추진중인 전 세계적인 표준화 기구로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간의 협력 추진' 및 'CommerceNet과 CommerceNet Global Partner들간의 전자상거래관련 기술 경험의 교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표준 및 지침 설정을 위한 공동 개발 및 참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CommerceNet Global Partner 구성

CommerceNet Global Partner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개방적인 인터넷 기반의 인프라 이용을 촉진하는 활동의 증진 및 비독점적이며 호환성을 가진 표준에 기초한 전자상거래 솔루션 개발, 공개회원제와 컨소시엄 활동에 의한 광범위한 참여 유도의 활동을 추진한다. 현재 Global Partner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가 설립되어 운영중이며,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스웨덴, 이태리, 호주가 설립중이고 그의 영국 등이 '97년 초 설립을 준비중에 있다.

〈표 3〉 CommerceNet Global Partner 구성



CommerceNet Korea 설립 목적

CommerceNet Global Partner 프로그램에 따라 설립 추진중인 CommerceNet Korea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지침 및 표준 설정과 그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여, 국내 표준화 추진을 위한 협의체로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가간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개발하는 전 세계의 기관 및 기업의 네트워크와 연동한 ‘Global Solution의 개발’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신기술 및 경험의 획득과 비독점적이며, 호환성을 가진 국제 표준에 기초한 ‘전자상거래 핵심 Solution’ 개발 및 회원사 공유를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 유도는 물론, CommerceNet Global Partner들과의 국제협력 및 정보교환, 공동 Pilot Project 추진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무역 활성화에 기여함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CommerceNet Korea의 역할

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CommerceNet Korea는 CommerceNet Global Partner로의 자격으로, ‘CommerceNet 컨소시엄’에서 한국을 대표, 국제 전자상거래 표준제정에 참여하며, 인터넷 Business에 참여코자 하는 새로운 Venture 기업을 위해,

신기술 및 전자상거래 표준의 제공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후원자로서의 역할 수행은 물론, 개방적 표준 환경에 기초한 국내 표준의 정의와 지침 설정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표준 정립에 기여와 인터넷 기반의 신규 사업 기회의 개발을 통해 이에 기초한 새로운 Business 영역을 우수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역할을 추진하고자 한다.

CommerceNet Korea 조직 구성(안)

CommerceNet Korea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과 Pilot Project를 수행하고 관련 신기술의 기업 적용을 위한 기술 개발 조직인 ‘Working Group’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이 사회와는 별도의 감사기관이 있으며, 관련 업무의 자문을 위한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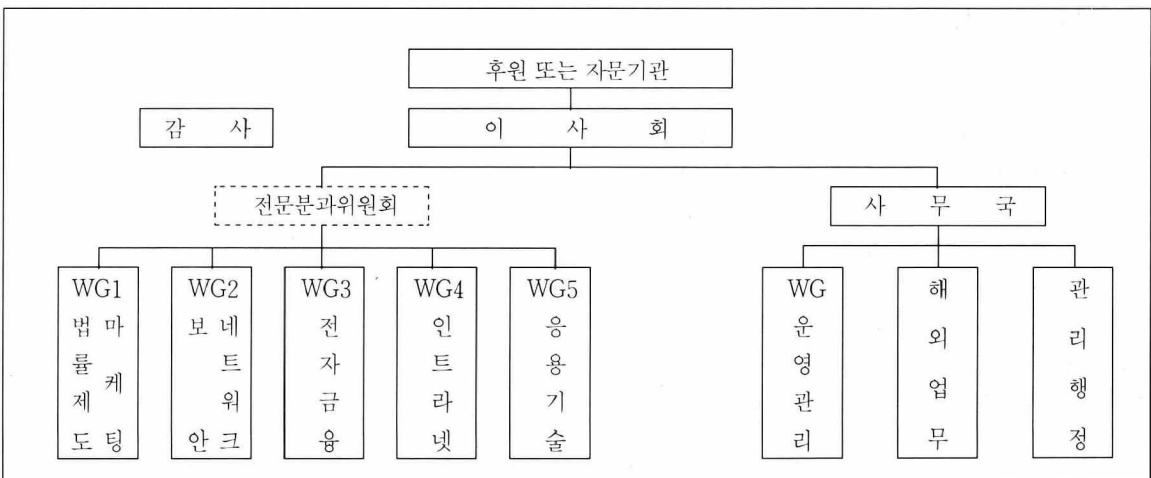
가. 이사회

CommerceNet Korea의 사업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서 정관변경, 예산 및 결산 심의 등 정관에 의해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나. 사무국

CommerceNet Korea의 운영과 CommerceNet 및 CommerceNet Global Partner간 국제협력, 회원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이사회와

〈표 3〉 CommerceNet Korea 조직 구성도(안)



Working Group의 활동을 지원한다.

다. 감사

이사회와 별도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매 정기총회시 당해 연도의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의 감사 업무를 수행

라. 전문분과위원회

Working Group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 CommerceNet 컨소시엄의 Products의 국내 도입 적용 및 관련 신기술의 도입 검토, Pilot Project의 추진 등의 개발 업무 수행을 담당

CommerceNet Korea의 추진사업

CommerceNet Korea는 국내 Electronic Commerce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가.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 기술력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전자상거래 인프라 및 전자시장 서비스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회원사 공유

Electronic Commerce관련 요소기술에 대한 연구 Project 산출물의 회원사 공유로 국내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 보급 및 국내 표준화 추진을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조기 활성화 추진

- CommerceNet 컨소시엄 주관 국제행사 참가 및 Global Partner간의 국제 기술교류 증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조기 정착 및 공동 기술개발,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창구역할을 수행하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건의활동 및 CommerceNet 컨소시엄, Global Partner간의 기술교류 추진으로 인터넷 Business의 해외 사례의 회원사 제공과 국제 공동 Pilot Project의 추진 사업을 전개

나.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인터넷 기반의 신규 수익 사업 분야 창출로 기업 참여의 확대를 위한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 개발 사업 및 연구소와 학계 등 관련 기관 중심으로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핵심기술 개발 Project의 지원사

업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제 표준을 준용한 국내 전자상거래 표준의 제시 등을 통해 국내 표준의 지침 설정과 표준으로의 정착을 위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며, 기타 회원사 이익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인터넷 기반의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론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은, ‘공공부문의 참여와 민간의 자발적인 개발 노력’을 기본 조건으로, ‘전세계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과의 공조’를 통해서만이 보다 효율적인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기반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노력은, 정부 및 사회 각계의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리란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도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각계의 관심 증가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기에, 미 정부 지원과 전세계의 전자상거래 관련 주도적인 기업이 대거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CommerceNet 컨소시엄’과의 협력관계 수립은 향후, 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기반으로한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성화’와 ‘국내 전자상거래 표준화’ 및 ‘제반 인프라 구축사업의 전개’를 목적으로 설립 추진중인 ‘CommerceNet Korea’는 ‘국제표준을 준용한 국내 표준의 정립’과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의 국제 교류 증진으로, 전자상거래관련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표준의 국제표준으로의 제안 활동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더 나아가 국내 정보통신산업 조기 확산을 유도하는데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